해인사대장경판 인출본의 역사 · 문화적인 성격과 대성사 소장『四分律』*

崔永好**

－목 차－

Ⅰ. 머리말
Ⅱ.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본의 역사 · 문화적인 성격
Ⅲ. 대성사 소장『사분율』의 현상과 역사 · 문화적인 성격
Ⅳ.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해인사대장경판의 현존 인출본에 담겨진 역사 · 문화적인 성격을 진단한 다음, 보물 제1943호로 지정된『사분율』의 인출본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 가운데 고려말기~조선초기의 불교기록유산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 시기 찍은『사분율』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인되었으므로, 보물 제1943호『사분율』에 담긴 역사 · 문화적 가치와 성격을 집중 분석하여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본의 새로운 이해 지표를 확보하였다. 특히 보물 제1943호『사분율』은 표지나 장정 등이 인출불사 당시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객관적인 이해 지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첫째, 보물 제1943호『사분율』은 형태서지학적 기본정보와 구성체계 등에서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해당 경판을 원천텍스트로 인출한 불교기록유산이다. 둘째로, 인출시기는 조선 세조 때이다. 해당 인출본은 인출상태와 간행기록의 유무, 장정형태나 개법장진언부호의 표제, 인출종이의 종류 등에서 세조가 국가 · 왕실불사로 해인사대장경판을 50질을 찍어 전국의 유명 사원에 나누어 준 불교기록유산으로 확인하였다. 셋째로, 해당 인출본에는 개법장진언부호의 표기로, 세조 당시 불교경전의 신성성과 장엄성을 인식하는 불교의식이 담겨져 있다. 넷째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당학술원 조교수(daejk58@dau.ac.kr)

로, 해당 인출본에서는 세조 당시 高麗國의 왕조에 대한 인식태도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인출본은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사분율』권47~50의 훼손 부분을 복원하는 동시에, 해당 경판의 보존상태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도 담고 있다.

주제어 : 해인사대장경판, 세조, 인출본, 대성사,『사분율』

Ⅰ. 머리말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존된 해인사대장경판은 고종 23년(1236)부터 조성사업이 시작되어 고종 38년 9월 일단락된 이후, 충숙왕 5년(1318) 11월까지 江華京(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문 밖의 大藏經板堂에 봉안되었다가 우왕 7년(1381) 4월 이전 가야산 해인사로 옮겨 왔으며,[1] 현재까지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해인사대장경판은 1934년 5월 '海印寺大藏經板'이라는 명칭으로 典籍書跡文書 가운데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되었다[2]가 1962년 12월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6월에는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諸경판'에 포함되어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기록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인사대장경판은 조성불사가 일단락된 고종 38년 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최소 20차례 이상이나 인출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대만・일본・대마도・유구국・미국・영국・호주 등 여러 지역으로 유통되었다. 여러 시기에 찍어 만든 인출본은 당대의 역사・문화적인 성격을 함축적으로

1) 해인사대장경판이 우왕 7년 이전 해인사로 옮긴 사실은 최근 다음 글에서 정리되었다.
崔永好,「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역할」,『한국중세사연구』31, 한국중세사학회, 2011, 345~350쪽.
任得均(性安스님),「『高麗大藏經』의 海印寺 봉안과 사원의 위상」,『石堂論叢』5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2. 389쪽.
박용진,「고려 우왕대 大藏經 印成과 그 성격- 이색 撰 고려대장경 印成 跋文과 신륵사 大藏閣記를 중심으로-」,『한국학논총』3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107~109쪽.

2)「燦爛한半萬年의 文化를자랑하는古蹟: 國寶二百五十二點 萬歲에保存을 決定/ 寶物二百十,古蹟廿一, [天然物|廿一點/ 朝鮮寶物古蹟保存會서」,『동아일보』제4813호, 1934년 05월 03일(목요일) 02면.

담고 있다. 때문에 인출본은 해인사대장경판에 반영된 당대의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 인출본의 유통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원판을 복원하며, 원판의 보존현황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귀중한 원천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사・불교문화・서지학 영역의 연구자들은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3] 이 과정에서는 고려 우왕 때[4]와 더불어 조선 세조 때의 인출불사도 정리되었다. 세조 때의 인출불사는 세조의 인쇄문화・서적문화 및 法寶신앙과 함께 인경본의 일본전래 사례 등을 분석하면서 해인사대장경판의 50질을 인출한 사실도 부분적으로 검토하였다.[5] 서지학 분야에서는 관련 인출발문의 분석, 소요물자의 조달, 인출기간, 완성 인출본의 안치 등도 분석하였다.[6] 이들 연구에서는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불사의 배경이나 지원목적을 세조의 崇佛경향이나 불교정책과 연계하여 이해하였으며, 최근에는 해인사대장경판에 대한 세조의 지원형태와 국가・사회적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7] 그러면서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에 담겨진 역사・문화적인 실체나 성격의 검토는 아직까지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세조 때 해인사대장경판을 찍어 만든 大成寺 소장 『사분율』(보물 제1943호)을 사례로, 인출본에 담겨진 당대 역사・문화적인 성격을

---

3) 바바 히사유키(馬場久幸), 『高麗大藏經이 日本佛敎에 미친 影響』,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 吳龍燮, 「『高麗國大藏移安記』에 대한 考察」, 『書誌學硏究』 24, 한국서지학회, 2002.
박용진, 앞의 논문.
남동신, 「李穡의 高麗大藏經 印出과 奉安」, 『韓國史硏究』 163, 한국사연구회, 2013.
5) 金鉉淑, 「朝鮮 世祖朝의 印刷文化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서진원, 「朝鮮 世祖朝의 佛敎政策과 佛書刊行에 관한 연구」, 『도서관』 47-3, 1992.
李智冠, 「大藏經傳來 및 再雕本印經考」, 『韓國佛敎文化思想史(上)』, 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 1992.
李智冠 편저, 『伽倻山海印寺誌』, 伽山文庫, 1992.
朴相國, 「대장도감과 고려대장경판」, 『한국사』 21, 국사편찬위원회, 1996.
김윤식, 「朝鮮 世祖의 學術活動과 書籍文化에 대한 考察」, 『書誌學硏究』 29, 2004.
이경미, 『고려・조선의 法寶信仰과 經藏建築의 변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기윤혜, 「朝鮮 前期 仁粹大妃 刊行 佛書의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최연주, 「조선시대 『고려대장경』의 印經과 海印寺」, 『동아시아불교문화』 1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
6) 오용섭, 「世祖 4年의 「高麗大藏經」 後刷考」, 『문헌정보학보』 5, 중앙대학교, 1993.
吳龍燮, 「'高麗新雕大藏徑' 後刷考」,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오용섭, 「「印經跋文」 異版本考」, 『인천대학교논문집』 25, 1996.
吳龍燮, 「「搨印節目」으로 본 世祖年間 大藏經 印出」, 『書誌學硏究』 30, 2005.
7) 任得均(性安스님), 「海印寺 소장 高麗大藏經板의 印經佛事에 대한 조선 세조의 지원 의도」, 『石堂論叢』 59,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4.

세밀하게 진단해 볼 예정이다. 분석과정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현존 해당 원판 및 인출본을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관찬 기록, 개인문집과 묘지명 등 다양한 원천자료를 교차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의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로써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에 함축된 역사·문화적인 성격과 현존 경판의 보존현황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되길 기대한다.

Ⅱ.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본의 역사·문화적인 성격

해인사대장경판은 조성사업이 일단락된 고종 38년(1251) 9월부터 빈번하게 인출되었다.

> 이에 대장경이 사경된 것은 금자·은자·묵자가 있으며, 인성된 된 것은 요본·송본·향본이 있다. 향본은 곧 현재 유행하는 목판본이므로 전국의 이름난 사원에는 없지 않다.[8]

충렬왕 32년(1306 : 大德 10년) 9월 閔漬가 기록한 「高麗國大藏移安記」에는 향본으로 표현된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이 14세기 초기 전국의 이름난 사원에 봉안되어 있다고 하였다. 해인사대장경판은 고종 38년 이후부터 충렬왕 32년까지 50여년 사이에 인출본이 전국의 유명 사원에 유통될 만큼 빈번하게 인출불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까지의 많은 인출본 가운데 3질은 강화도의 普門社에도 보존되어 있었다.

> 충렬왕 30년(대덕 8) 갑진년 가을…사(南嶽 鐵山和尙)께서 중생의 교화로 돌아다니다가 江華(인천광역시 강화군)의 보문사에 이르러 대장경 3본을 보고 그 유래를 물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2본은 오랜 옛날 국왕과 신하들이 봉안

8) 由是, 大藏寫成者, 有金字銀字墨字, 印成者, 有遼本宋本鄕本. 鄕本則現有流行之板, 故內外名刹, 靡不有焉(閔漬, 「高麗國大藏移安記」: 許興植, 「高麗에 남긴 鐵山瓊의 行跡」, 『韓國學報』 11-2(39), 일지사, 1985, 129쪽 및 張東翼,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출판부, 1997, 92~95쪽).

한 대장경 인출본이며, 1본은 지금의 봉익대부 · 지밀직사사 · 군부판서 · 상호군 허평께서 서원군부인 염씨와 함께 요인불성으로 만든 대장경입니다."[9]

충렬왕 30년 7월 고려 국왕을 접견한 중국 臨濟宗의 고승 鐵山 紹瓊[10]이 같은 해 가을 강화도의 보문사를 방문하였을 때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 3질을 열람하였다. 3질 가운데 2질은 철산 소경이 보문사를 방문하기 오래 전에 고려의 국왕과 관료들이 찍은 인출본이며, 나머지 1질은 충렬왕~충선왕 때 궁전배장군 · 검교정승을 지내고 뒤에 이름을 許嵩으로 바꾼 許評[11]과 그의 부인 瑞原郡夫人 廉氏(廉承益의 맏딸)가 만든 인출본이었다. 이 가운데 국왕과 관료들의 인출본은 충렬왕 30년을 기준으로 오래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인출 시기를 고종 38년으로 짐작[12]하나, 고종 38년 이후부터 원종 때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무외국통의 하산소인 용암사는 진양(경상남도 진주시)의 속현인 반성현동쪽 모퉁이에 위치한 영봉산 가운데 있다…그러나 창건한 연대가 오래되고 멀며 또한 주지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당우가 기울고 허물어지고 象設(불 · 보살의 조각상과 불사의 설비)이 훼손되고 떨어졌으며 대장경도 썩고 찢어져 모두 흔적도 없어질 처지에 있다…충숙왕 5년 무오년(1318) 제찰사 이황과 염장별감 방우정이 또한 주상의 명령으로 불사를 감독하여 준공하였다. 무릇 새로 지은 당우가 80여 칸이며, 수리한 옛 당우가 20여 칸이었다…용장사 대장경의 보충도 있었다. 지난번의 염장별감 이공(이황)과 방공(방우정)이 주상의 명령을 특별히 받아 별도로 임금의 명령을 받아 雪牋紙 30,000여 장과 漆函 140여 부를 만들어 인출불사를 보조하였다. 대사(무외국통)의 제자인 대선사 承淑과 中德 日生 등이 江華의 판당(대장판당)으로 가서 빠진 함 · 권 · 장을 인출하여 돌아와서 신본과 구본을 600여 함으로 아울렀다. 모두 누런 종이로 표지를 입히고, 황색 명주에 싸서 새로 만든 전각과 장경각의 안에 봉안하였다. 염장별감 방공이 주상의 명령을 다시 받들어 임금의 명령을 충숙왕 5년 11월 18일 무외국통을 영접하여 사원으로 들어가 약 7일 동안 낙성법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낮에는 대장경을 읽고 밤에는 현묘한 뜻을 말하여 주상의 장수를 축원하고 모든 백성의 복을 빌었다.[13]

---

9) 大德八年甲辰秋…師因遊化, 到江華普門社, 見藏經三本, 問其來由. 曰, 二本乃往古君臣所安, 一是今奉翊大夫知密直司事軍簿判書上護軍許評, 同瑞原郡夫人廉氏 了因所營也(閔漬, 「高麗國大藏移安記」).

10) 『고려사』 권32, 충렬왕 30년 7월 기묘.

11) 『고려사』 권105, 許珙傳.

12) 吳龍燮, 앞의 논문(2002), 83~84쪽.

반성현(경상남도 진주시 일・이반성면)에 위치한 靈鳳山의 龍巖寺에는 충숙왕 5년(1318)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본의 보충불사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해당 인출본을 소장하고 있었다. 해당 인출본의 인출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충숙왕 5년 당시에는 이미 상당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고종 38년 이후부터 충렬왕 초기까지에 해당하는 13세기 후반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충렬왕 32년 9월 閔漬가 기록한 「高麗國大藏移安記」에서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이 전국의 이름난 사원에 봉안되었다는 사실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충렬왕 32년 전후의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불사는 貞肅公 趙仁規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 공은 성품이 또한 착한 것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였다. 더욱이 불교에 독실하여 淸溪佛寺를 창건하고 주상을 위해 복을 기원하였다. 금으로 『묘법연화경』을 사경하고 먹으로 대장경을 인출하였으며 불상을 그리고 만들었다. 이러한 불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14]

충숙공 조인규는 충렬왕 34년(1308) 4월에 죽었으므로[15]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를 이 이전 시기에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은 충렬왕 32년 당시까지 전국의 이름난 사원에 상당하게 유통되어 봉안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인출불사가 지속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충숙왕 5년 용봉산의 용암사에서 인출본을 보충한 불사이다. 충숙왕 복위 5년 이전으로는 충선왕 2년(1310) 9월부터 같은 왕 3년 9월 사이에 卞韓國大夫人 鄭氏와 雞林君 金琿이 『대반야바라밀다경』을 인출

---

13) 無畏國統下山所龍巖寺, 乃在於晉陽屬縣班城東隅靈鳳山之中也…然以經始代遠, 又住持者無恒, 故屋宇頹圮, 像設剝落, 大藏朽壞, 皆將掃地矣…五年戊午, 提察使李賕, 塩場別監方于楨, 亦承上命, 督役畢功. 凡新構者八十餘間, 修舊者二十餘間…其大藏之補也. 向之塩場李公方公, 別受上命, 造雪牋三萬餘張, 漆函一百四十副, 以助之. 師之門人大禪師承淑, 中德日生等, 就江華板堂, 印出闕函闕卷闕張, 而來, 新舊幷六百餘函. 皆衣以黃紙, 幅以黃絹, 合安于新殿新藏之中. 塩場方公, 復承上命, 以五年十一月十八日, 迎師入院, 約七日間, 大設落成法會.晝讀大藏, 夜談玄旨, 祝上壽福萬民(朴全之, 「靈鳳山龍岩寺重創記」, 『東文選』 권68, 記).

14) 性又好善喜施, 尤篤於釋敎, 刱淸溪佛寺, 爲上祝釐. 金書妙典, 墨印海藏, 繪塑梵像. 不可勝紀(李穀, 「趙貞肅公祠堂記」, 『稼亭集』 권3, 記).

15) 『고려사』 권32, 충렬왕 34년 4월 계축.

한 불사가 있으며, 그 이후로는 충숙왕 복위 3년(1334)~7년 上護軍 崔文度가 돌아가신 부모 文簡公 崔誠之 및 馬韓國大夫人 金氏의 명복을 빌며 해인사대장경판의 『대반야바라밀다경』을 인출하여 天和禪寺에 봉안한 인출불사가 확인된다.[16] 아울러 왜구가 강화도의 禪源寺와 龍藏寺를 침범한 공민왕 9년(1360) 윤5월[17] 이전 인출하여 당시까지 용장사에 소장되었다가 砥平縣(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彌智山의 龍門寺로 옮겨 봉안한 인출본의 인출불사,[18] 공민왕 7년(1358) 경 南原府(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던 勝蓮寺의 중수불사 때 지역 사람들이 찍어 불전의 좌우에 안치한 인출불사,[19] 목은 李穡이 주도하여 우왕 7년(1381) 驪興郡(경기도 여주시)의 神勒寺에 봉안한 인출불사,[20] 공양왕 3년 경 태조 이성계가 주도하여 瑞雲寺에 봉안한 인출불사,[21] 演福寺와 龍門寺에 봉안한 조선 태조 2년 경의 인출불사,[22] 그리고 태조 2년(1393), 정종 원년(1399), 태종 13년(1413), 세종 21년(1439), 세조 3~4년(1458), 연산군 6년(1500), 고종 2년(1865), 광무 3년(1899), 1915년, 1937년, 1963~1968년[23]

---

16) 이 때 인출본은 현재 對馬島 金剛院과 미국 하버드대학 燕京圖書館에 보존되어 있다(海老澤, 『東アジアにおける水田形成および水稻文化の研究』, 白峰社, 2004, 118～121쪽 및 尹忠男・金成煥 편저, 『하버드 燕京圖書館 韓國貴重本 解題』 제1권, 경인문화사, 2005, 161～163쪽). 이 인출본 가운데 卞韓國大夫人 鄭氏와 雞林君 金琿도 인출사업에 참여한 묵서도 있다. 김혼은 충선왕 2년(1310) 9월 계림군으로 책봉되었다(『고려사』 권33, 충선왕 2년 9월 을유)가 이듬해 9월 죽었으므로(『고려사』 권34, 충선왕 3년 9월 무신), 충선왕 2년 9월부터 같은 왕 3년 9월 이전 인출불사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혼이 충숙왕 복위 3년 경의 인출불사와의 관련 여부를 다른 글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17) 조선시대에는 禪源寺와 龍藏寺가 터만 남아 있었는데, 그 위치는 강화부의 남쪽 8리와 서쪽 4리에 각각 있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경기, 江華都護府, 고적).

18) 李穡, 「砥平縣彌智山龍門寺大藏殿記」, 『東文選』 권74, 記 및 『牧隱文藁』 권4, 記.

19) 李穡, 「勝蓮寺記」, 『牧隱文藁』 권1, 記 및 『東文選』 권72, 記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9, 전라도, 남원도호부, 불우, 승련사.

20) 李崇仁, 「睡菴文長老印藏經于海印寺戲呈」, 『陶隱集』 권3, 詩.
李穡, 「送懶翁弟子印大藏海印寺」, 『牧隱詩稿』 권28.
李崇仁, 「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 『陶隱集』 권4, 文.
吳思忠, 「論李穡疏」, 『東文選』 권53, 奏議
李穡, 「何哉嘆」, 『牧隱詩稿』 권31.

21) 權近,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 『陽村集』 권37, 碑銘類.

22) 權近, 「演福寺塔重創記」・「演福寺塔重創記」, 『陽村集』 권12, 記類 및 『東文選』 권78, 記.
權近, 「演福寺行大藏經披覽疏」, 『陽村集』 권28, 疏語類 및 『東文選』 권113, 疏.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개성부 상, 불우, 연복사.
卞季良, 「妙嚴尊者塔銘」, 『東文選』 권121, 碑銘(2종) 및 「朝鮮國王師妙嚴尊者塔銘」, 『春亭續集』 권1, 銘.

23) 1967년 9월에는 일본 오사카 사천왕사 관장 出口대사 등이 우리나라에 와서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 3질의 구입을 요청하면서 1,339책의 1질이 2,678,000원이었다(「『八萬大藏經』첫輸出 日 四天王寺官長등來韓」, 『동아일보』 제14125호, 7면, 1967.09.12. 화요일).

등의 인출불사[24]도 있었다. 또한 1931년 3월에는 경성제국대학 및 조선총독부가 중국・일본 학자들의 요청으로 1931년 『一切經音義』의 100부를 인출하여 1부당 100원씩을 받고 중국・일본의 대학 및 도서관,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경성제국대학의 도서관, 불교교무원, 불교전문학교 등에 유통하였다.[25]

이처럼 조성사업이 일단락된 고려 고종 38년 9월부터 1960년대까지 찍어 만든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첫째로, 이들 인출본에는 관찬 사서나 개인문집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당대의 기록을 보완하는 원천자료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충숙왕 복위 3년(1334)~7년 上護軍 崔文度가 인출하여 天和禪寺(天和寺)에 봉안한 『대반야바라밀다경』, 그리고 牧隱 李穡이 주도하여 우왕 7년(1381) 驪興郡의 神勒寺에 봉안한 인출본 등이다. 최문도의 주도로 인출한 『대반야바라밀다경』에는 인출정보가 묵서되어 있으며, 붉은 색의 藏書印도 포함되어 있다.[26] 우왕 7년 목은 이색이 주도한 인출본에도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0의 말미 등에 이색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27]



우왕 7년 인출본의 이색 발문(『대반야바라밀다경』 권170 제24장 다음 면, 오타니대학 소장)

24) 기존 연구에서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를 충숙왕 5년부터 1968년까지 14차례로 정리(朴相國, 앞의 글)되었으나, 그 횟수는 더 확인되고 있다.

25) 「世界唯一의海印寺大藏經 一部分의印刷에着手」, 『동아일보』 제3659호, 2면, 1931.03.06(금요일).

26)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19 제27장에는 '天和寺大藏'이라는 붉은 색의 장서인, 그 다음 장에는 '先考光陽崔文簡公諱誠之与先妣馬韓/ 國大夫人金氏同發願許造一大蔵事巨未/ 就而相次下世文度泣血継述今已弁置/ 先公所營天和禪寺恭願/三寶證明功德者元統二年甲戌六月 日男/ 前正順大夫千牛衛上護軍崔文度謹識'이라는 인출정보가 묵서되어 있으며, 권578 제25장의 다음 장에도 '先考光陽崔文簡公諱誠之与先妣馬韓/ 國大夫人(金氏)同發願許造一大蔵經事巨未/ 就而相次下世文度泣血継述今已弁置/ 先公所營天和禪寺恭願/ 三寶證明均資 恩有者至元四年戊寅七月 日男/ 前正順大夫千牛衛上護軍文度謹識'이라는 유사한 간행기록이 묵서되어 있다(海老澤, 앞의 책, 118~121쪽).

27) 바바 히사유키, 「日本 大谷大學 소장 高麗大藏經의 傳來와 特徵」, 『海外典籍文化財調査 目錄－日本 大谷大學 所藏 高麗大藏經』,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436~438쪽

이들 자료의 내용 가운데는 『고려사』·『고려사절요』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다. 天和寺(天和禪寺)의 경우는 『고려사』에서 예종과 의종 때인 12세기 초중기까지 존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28] 인출정보를 근거로 충숙왕 때 최문도 집안의 원찰로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사』 권108, 崔誠之傳과 崔文度傳에는 이들 부자가 불교나 사원의 경영과 관련된 기록이 없으며, 특히 최문도는 성리학을 실천한 인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에 비해 인출정보에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 사실이나 천화사의 경영 등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원천자료의 보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서 최성지의 부인이 馬韓國大夫人 金氏이라는 사실도 인출정보에서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우왕 7년 인출된 인경본에 포함된 인출정보에서는 南秩이 宜春君으로 책봉된 사실 등을 보완하고, 『고려사』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晉州牧使 겸 勸農防禦 朴藏, 그리고 華嚴大禪師 尙聰 등의 승려와 文化郡夫人 柳氏 등의 내명부가 존재한 사실 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오타니대학 소장
인출본(우왕 7년 인출)



해인사 소장 인출본(조선 고종 때 인출 등)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 인출본(1963～1968년 인출)

28) 『고려사』 권14, 예종 15년 7월 을묘 및 예종 16년 7월 기묘.
『고려사』 권18, 의종 15년 8월 정묘 및 의종 19년 2월 정유.

아울러 인출정보에서는 인출불사의 운영체계・배경과 국가・왕실・사회・개인적인 기원의식, 인출불사 참여자의 실체와 인적 연계망, 그리고 인출불사 주도자의 운영사원과 해당 사원의 단월 실체 등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인출본에는 당대의 종이종류, 裝幀기술과 형태, 표지 및 인출본의 제작방식 등과 같이 다양한 기술정보도 담겨져 있다.

이 가운데 우왕 7년 인출본『대반야바라밀다경』권2의 표지는 후대 가필된 부분을 제외한 원래의 표제형태가 인출불사 당시 지은 李崇仁의 글과 일치한다.

> 신유년(우왕 7년 : 1381) 4월에 이르러 경・율・논장(해인사대장경판)을 인출하였다. 9월에는 표지를 장식하고 10월에는 覺珠가 금가루로 경전의 제목을 쓰고 覺峯이 누런 책가위를 만들었다. 12월에는 性空이 상자를 만들었다…임술년(우왕 8년) 정월에는 화엄종 靈通寺에서 거듭 교열하고 4월에는 배에 싣고 여흥군의 神勒寺에 이르렀는데 懶翁이 입적한 곳이다. 花山君 權公僖가 제목을 주관하여 다시 여러 단월들과 함께 재물을 시주하고 同庵의 順公이 공사를 감독하여 마침내 신륵사의 남쪽에 2층의 大藏閣을 세우고 크게 단청을 장식하였다. 이미 불사를 마치고 시렁을 만들어 찍은 경・율・논장을 보관하였다.[29]

우왕 7년의 인출본은 覺珠가 금가루로 경전의 제목을 쓰고 覺峯이 누런 책가위를 만들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우왕 7년의 인출본은 후대의 인출본과 차이를 보인다.

우왕 7년 인출본은 장정형태가 절첩본으로, 조선 고종 때 및 1960년대의 선장본과 차이를 보이며, 표지 형태도 서로 다르다. 표지의 표제도 題簽의 여부와 함께 금니로 쓰거나 묵서에서 차이를 보이며, 해당 경전의 장엄성과 신성성을 표현하는 開法藏眞言부호의 유무에서도 우왕 7년의 인출본과 조선 고종・1960년대의 인출본에서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인출본에는 인출불사 당시 장정의 기술적 수준과 역량, 그리고 불교경전에 대한 인식형태 등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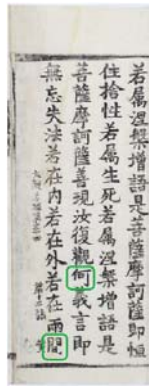
29) 至辛酉四月, 印出經律論. 九月粧개[衤+皆], 十月覺珠泥金題目, 覺峯造黃複. 十二月性空造函…壬戌正月, 於華嚴靈通寺轉閱, 四月舟載, 至于驪興之神勒寺, 懶翁示寂之地也. 花山君權公僖主盟題目, 復與諸檀施財, 同庵順公董役, 遂於寺之南, 起閣二層, 覺脩丹雘. 旣畢, 庋而藏之(李崇仁,「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陶隱集』권4, 記 및『東文選』권76, 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인출본에는 해인사대장경판의 보존상태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해당 원판의 존재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발견된 『內典隨函音疏』이다. 우왕 7년을 비롯하여 조선 고종 때 인출된 인경본에는 『내전수함음소』가 인출되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1915년 및 1960년대 인출된 인경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원판 가운데 2판이 2009년 발견되었다가 2013년 보물 제1806호로 지정되어 현재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존되어 있다. 때문에 인출본에는 특정 원판의 존재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출본은 특정 원판의 보존상태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시기의 경과에 따른 원판의 후대 마모도에서의 진행상태와 더불어 우수한 보존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존 원판 및 우왕 7년 인출본(『대반야바라밀다경』 권34 제12장)

『대반야바라밀다경』 권34 제12장의 경우는 해인사의 장경판전에 현존하는 원판의 제22・23행에 표기된 '何' 및 '間'자의 일부가 마모되어 있다. 해당 글자의 마모현상은 우왕 7년에 인출된 오타니(大谷)대학 소장의 인경본에서도 거의 그대로 확인된다. 때문에 이러한 마모현상은 우왕 7년 당시의 상태로 현재까지 해인사대장경판의 보존상태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로, 인출본에는 현존 원판에 새겨진 원천정보 가운데 훼손된 내용을 복

원할 수 있는 정보도 담고 있다. 현존 해인사대장경판의 『대반야바라밀다경』 권7 제26장 및 권52 제28장 등에는 간행정보 가운데 '勅雕造' 부분만 남아 있으며, 상감기법으로 표기된 앞부분이 탈락되어 있다. 때문에 현존 원판으로는 해당 경판의 조성시기와 조성공간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대마도 金剛院 소장의 해당 인출본에는 정유세에 조성되었다는 간행정보가 인출[30]되어 있으므로, 해당 인출본은 현존 경판 가운데 훼손된 원천정보를 보완하는 기능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출본의 경우는 현존하지 않는 원판의 복원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인사대장경판의 개별경판에 포함된 『대반야바라밀다경』 권33의 제12・13장과 『阿毗達磨大毗婆沙論』 권88의 제5・6장 및 『阿毗達磨順正理論』 권7 제17・18장 등이 해당된다.

다섯째로, 인출본에는 원판과 후대 보각경판의 진위 여부, 보각경판의 보각시기 등을 해명할 수 있는 원천정보도 담고 있다. 현존 해인사대장경판 가운데 후대에 보각된 개별 경판은 118판으로 확인되고 있다.[31] 후대 보각경판 118판의 보각사업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인사대장경판 가운데 포함된 후대 보각경판은 ①일본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이 인출된 고려 우왕 7년 이후부터 刊經都監이 운영된 세조 7년(1461)～성종 2년(1471)의 당시나 그 전후 사이에 보각된 30판 47면을 비롯하여 ②戊辰年의 2판 4면, ③乙酉年의 1판 양면,[32] ④조선시대의 34판 58면, ⑤조선후기의 15판 20면,[33] ⑥1915년의 18판 26면, ⑦1937년의 18판 31면[34]이 2015년 현재까지 확인되었다.

이들 보각경판은 형태서지학적 형식, 경판의 각수와 보시자 및 발원문, 경

30) 海老澤, 앞의 책, 119쪽.

31) 특정 경전 종류의 중복・보각경판인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経』 10권의 溪함 및 雞함 가운데 雞함의 121판을 합치면, 그 수량은 증가한다.

32) 무진년과 을유년의 구체적인 연도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무진년의 경우는 우왕 7년 이후부터 간경도감의 운영 당시나 그 전후 사이인 우왕 14년, 세종 30년(1448), 중종 3년(1508) 가운데 특정 시기일 수도 있다.

33) 조선시대와 조선후기의 보각경판은 조선시대로 묶어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보각경판의 외형적 색과 형태(광곽의 사주단변에 있는 평면선 부분의 형태 포함), 각수와 보시자 및 발원문의 표기형태 등에서 상호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선후기 보각경판 가운데는 광무 10년(1906)에 보각된 경판도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34) 1937년의 보각경판 18판 31면은 1915년 보각경판의 18판 26면 전체를 다시 보각하여 중복되며, 그 나머지 6면은 다른 경판을 새로 보각하였다.

판의 외형적 형태, 판각기법, 장석성분 등에서 원판과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이들 분석지표로 원판과 후대 보각경판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보각경판 가운데 보각시기가 명확한 경우는 ⑥・⑦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러 시기에 찍은 다양한 인출본을 교차적으로 비교・검토할 때 ①~⑤에 포함된 보각경판의 보각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출본에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구성체계와 범위를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다. 현존하는 우왕 7년의 인출본은 해인사대장경판 가운데『대반야바라밀다경』권1(天함)부터『一切經音義』권100(洞함)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일본 도쿄(東京)의 조죠지(增上寺)에 소장된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본으로 세조 때 인출된 인경본도『一切經音義』의 권 끝에 金守溫의 跋文이 있다고 한다.[35] 이로써 15세기 중엽 세조 때의 인출불사에서도 해인사대장경판의 구성범위는『대장목록』과 그 목록에 입장된 '大藏'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선 고종 2년[36]과 1915년[37] 및 1960년대에 인출된 인경본에는 '대장'과 함께 조선 고종 2년에 조성된『보유목록』과 그 목록에 포함된 15종의 보유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때의 인출불사에서는 소위 보유판에 포함된『宗鏡錄』등을 '대장'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전과 함께 찍었다. 이러한 범위의 확대는 조선 고종 2년 5월 海冥 壯雄이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를 마친 다음, 고려 고종 35년(1248 : 무신세) 조성의『大藏目錄』에 누락된 15종의 경판을 보충하기 위해 소위『보유목록』1판 양면의 경판을 조성한 이후, 소위 보유판이 '대장'에 연계되어 착종되는 중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러 시기에 찍은 인출본에는 당대 해인사대장경판의 구성체계와 범위를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5) 常盤大定,「大藏經彫印攷」,『哲學雜誌』28-321, 1913, 1156쪽 및 池內宏,「高麗朝の大藏經(上・下)」,『東洋學報』13-3・14-1, 1923・1924 ;『滿鮮史硏究』中世2, 1937, 574・603쪽.

36) 조선 고종 20년에 인출되어 현재 월정사에 소장된 인경본은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수량은 총1,511부 6,802권 81,137판이라 한다(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문화재검색). 이 가운데 수량의 총1,511부는 '대장' 1498부 이외 '보유판'이 포함된 것이다. 한편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월정사의 인경본에는 '대장'과 더불어 소위『보유목록』및 그 목록에 포함된 보유판도 소개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고려대장경연구소의 관련 사이트에는 그 검색이 제한되어 있기도 하다(고려대장경연구소/ 경전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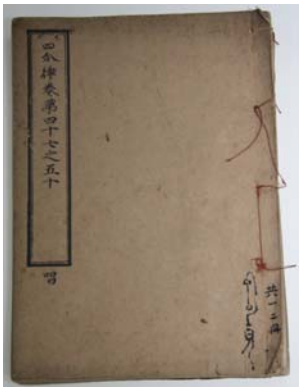
37) 小田幹治郎・寺內正毅,「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1915)」, 東山 泉涌寺, 1923, 3쪽.
池內宏, 앞의 책, 604~605쪽.

이처럼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에는 당대의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대성사 소장『사분율』의 현상과 역사문화적인 성격

부산 대성사에는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四分律』권47~50을 찍어 오침안정법의 線裝本으로 만든 인출본 1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이라는 명칭으로 보물 제1943호에 지정되었다. 현존 인출본은 2014년 발견될 당시까지 후대 수리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인출불사 당시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등 보존상태가 양호하였다.

[대성사 소장『사분율』권47～50의 인출본]



앞표지



뒷표지



권47 제1장 앞면 및 면지(뒷면)



권50 제32장(앞면) 및 제31장(뒷면)

인출본의 전체 규격은 40.2㎝×29.2㎝이며, 상하의 선 높이가 22.2㎝이다. 판본의 형식은 본문의 위・아래가 한 줄의 선으로 표시된 上下單邊이다. 개별 본문의 행과 행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는 無界이고, 全郭의 행자수는 23행 14자이며, 일부의 경우에는 註가 두 줄의 작은 글자로 배열된 小字雙行의 형식이다. 판수제는 본문보다 작은 글자이다. 인출본의 전체는 표지—面紙—권수제—한역정보—본문내용—권미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1장을 제외한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판수제가 본문 보다 작은 글자로 표기되어 있다.

표지는 황색계통이고, 주황색의 실로 書腦 부분을 꿰매었으며, 표지의 제목인 經題도 인출사업 당시의 묵서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앞표지의 왼쪽 상단에 있는 經題 부분에는 검은 색의 烏絲欄이 두 줄의 직사각형인 사주쌍변 형태로 표시되어 있고, 오사란 안에는 鶴立蛇橫 형태의 開法藏眞言부호와 함께 '四分律卷第四十七之五十'이라는 경전 이름+권+제+권차가 검은 먹으로 필사되어 있으며, 오사란 밖의 아래에는 '唱'이라는 해당 경전의 천자문 함차가 먹으로 쓰여 있다. 앞표지에는 좌측 하단의 서뇌 부분에 '共一二冊'이라는 전체 책 수의 표시와 함께 書押도 묵서되어 있다. 권50 제32장의 뒷면에 있는 서뇌의 하단에는 經函의 순차 등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짐작되는 '卅九庄' 또는 '四九庄'이라 판독되는 음각의 印章도 찍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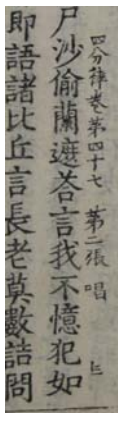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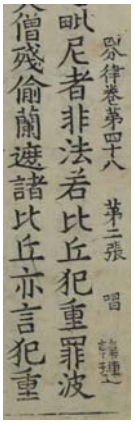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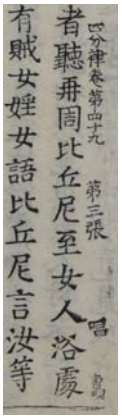
뒷표지 면지(앞면) 및 권50 제32장(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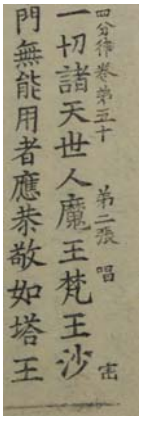
개별 권의 권수제는 '四分律卷第四十七 三分之十一 唱, '四分律卷第四十八 三分之十二 唱', '四分律卷第四十九 三分之十三 唱', '四分律卷第五十 第四分之

一 唱'과 같이 경전이름+권차+分科순서+함차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권수제 다음 행의 한역정보는 '姚秦罽賓三藏佛陁耶舍共竺佛念等譯'처럼 한역시기와 한역 인물 등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한역정보의 다음 행부터는 건도의 이름과 순차 등을 이어 해당 경전의 본문 내용이 새겨져 있다. 권47은 건도의 이름・순차 등이 「滅諍揵度第十六之一」, 권48의 경우는 「滅諍揵度之二」 및 「比丘尼揵度第十七」, 권49의 경우는 「比丘尼揵度之下」 및 「法揵度第十八」, 권50의 경우는 「房舍揵度初」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38] 권미제는 '四分律卷第四十七'과 같이 경전이름+권차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판수제는 '四分律卷第四十七 第二張 唱' 등과 같이 경전이름+권차+장차+함차의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권수제・권미제를 포함한 본문 등의 서체는 솔경체이다.


권47의 제2장


권48의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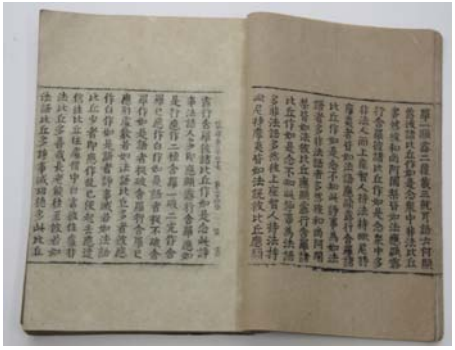

권49의 제3장


권50의 제2장

대성사 소장『사분율』의 각수

대성사 소장의 인출본에서는 각수 仁一(권47의 제2장)・韓璉(권48의 제2장)・曺規(권49의 제3장)・宝山(권50의 제2장) 등이 비교적 선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38) 제3분에 포함된 「멸쟁건도」는 불교 승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분쟁을 해결하는 규정의 장・편이고, 「비구니건도」는 비구니가 지켜야 하는 규정의 장이며, 「법건도」는 수행자의 행동을 규정한 장이다. 「방사건도」는 방에 머무는 방법이나 건물의 사용방법을 서술한 장이다.



권47 제24장(앞면) 및 제23장(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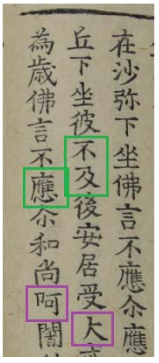
권50 제11장(앞면) 및 제10장(뒷면)

대성사 소장의 인출본에 사용된 전체 130장의 인출 종이 가운데는 다양한 종류의 藁精紙(雜草紙의 한 종류)와 두꺼운 닥종이(厚楮紙)가 섞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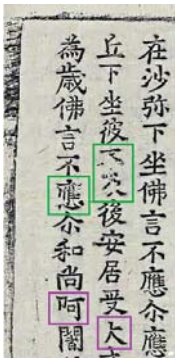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대성사 소장『사분율』인출본의 기본적인 현상을 근거로, 해당 인출본의 인출시기를 비롯하여 역사・문화적인 성격을 세밀하게 진단해 보기로 한다.



해인사 소장 원판(해인사팔만대장경연구원)



대성사 소장본



월정사 소장 인출본(고려대장경연구소)

해인사대장경판의『사분율』권50 제17장 제21～23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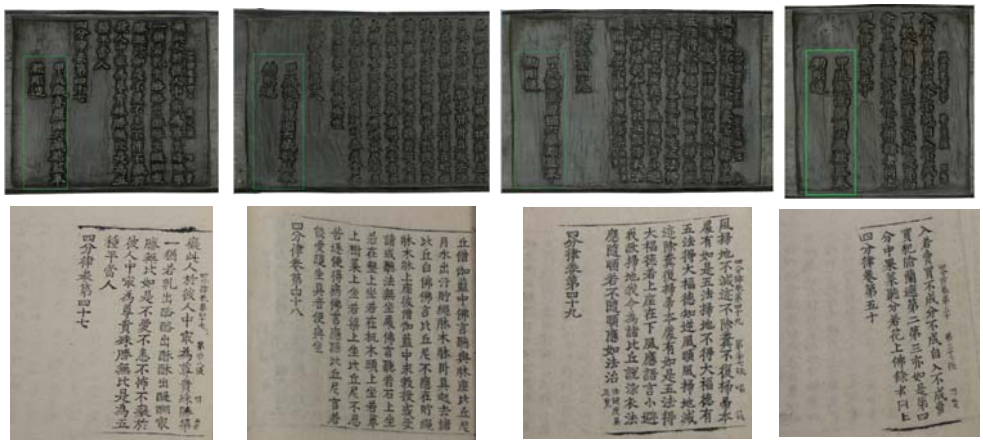
첫째로, 인출본의 인출원판은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사분율』권47~70이다. 대성사의 인출본은 간행정보 및 사주단변의 광곽 형태를 제외하고, 권수제・권미제・판수제・행자수 등과 같은 형태서지학적 기본정보와 구성체계를 포함하여 刻手와 서체(솔경체) 및 上下單邊의 규격・굴곡도 등에서 해

인사대장경판의 해당 경판과 동일하므로, 해인사대장경판의 해당 경판을 원천텍스트로 인출한 불교기록유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대성사 인출본의 인출시기를 조선 세조 때이다. 대성사 소장 인출본의 인경상태는 조선 고종 2년(1865) 인출되어 현재 오대산의 月精寺(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소장된 인출본보다 뚜렷하다.

대성사 소장『사분율』의 인출본은 권50, 제17장 제22・23행의 글자 가운데 '不及' 및 '應'자가 월정사 소장본이나 현존 해당 원판보다 마모도에서 덜 진행된 상태이며 글자도 뚜렷하게 찍혀 있으므로, 1865년의 이전에 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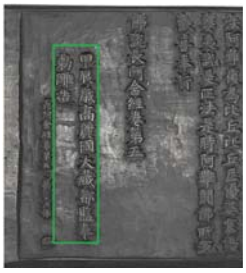
그러면서 대성사 소장 인출본에는 각 권의 권미제 다음 행에 새겨진 간행기록이 제외되어 있다. '갑진년(1244년 : 고종 31) 고려국대장도감이 고종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이 경판을 새겨 만들었습니다(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라는 간행정보가 인위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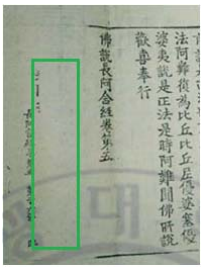
권47 제28장　　권48 제33장　　권49 제37장　　권50 제32장

간행기록의 이러한 제외 현상은 조선 세조 때 찍은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39]

39) 增上寺史料編纂所,『增上寺三大藏經目錄解題』, 1982, 47쪽.
바바 히사유키(馬場久幸), 앞의 박사학위논문, 2008, 145~146쪽.



해인사 소장 원판



法然寺(일본) 소장 인경본(바바 히사유키, 앞의 박사학위논문, 146쪽)

해인사대장경판의『불설장아함경』권5, 제26장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불설장아함경』권5, 제26장의 경우는 해인사의 장경판전에 소장된 원판이 권미제와 판미제 사이에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간행정보가 새겨져 있으나, 일본 法然寺에 소장된 인출본에는 해당 간행정보를 인위적으로 찍지 않으려고 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세조 때의 인출본에는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개별 권의 말미에 새겨진 간행정보가 인출불사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외한 현상이 확인되므로, 대성사 소장의 인출본도 이 때 찍은 불교기록유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대성사 소장 인출본에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표제나 장정의 형태 등에도 15세기 중엽의 형식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세조 때의 인출본이라 할 수 있다.



대성사 소장
『사분율』 권47~50
(보물 제1943호)



해인사 소장
『금강반야바라밀경』
(고종 원년 群生寺 조성)



해인사 소장『묘법연화경』
(고종 23년 鄭晏 조성)



송광사 소장
『대반열반경소』
권9~10
(간경도감판 인출)



해인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연산군 9년)

대성사 소장본의 표제에는 사주쌍변 형태의 오사란 안에 묵서된 경전이름의 위에 開法藏眞言부호가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개법장진언부호는 고종 원년(1214) 群生寺에서 조성된 『금강반야바라밀경』(해인사 소장) 등 13세기 초기 경판을 비롯하여 13세기 중엽 鄭晏이 조성한 『妙法蓮華經』 등 5종의 경판(해인사 소장),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조성한 경판을 찍어 만든 송광사 소장의 『대반열반경소』 권9~10(보물 제90호) 經題, 연산군 9년(1503) 조성된 『禮念彌陀道場懺法』(해인사 소장) 등 16세기 초기의 경판에 각각 표시되어 있으며, 우왕 7년 인출된 오타니대학 소장의 인출본에도 표기되어 있다.[40] 이처럼 개법장진언부호는 고려시대 이래 16세기 초기까지 확인되므로, 대성사 소장 인출본도 조선 세조 때 찍은 불교기록유산이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대성사 소장본의 인출종이 종류에서도 세조 때 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성사 소장의 인출본에는 여러 종류의 고정지와 두꺼운 닥종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종이 종류는 세조가 주도한 인출불사 때의 사실과 부합한다. 세조의 인출불사 때에는 각 도에서 종이를 확보하였다. 세조 3년(1457) 6월에는 국왕이 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황해도의 관찰사들에게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에 필요한 물적 자원의 준비를 지시하면서 종이도 포함시켰으며,[41] 세조 4년 인출불사에서는 雜草紙(藁精紙)로 47질을 인출하였다.[42] 때문에 세조 때의 인출본에는 여러 종류의 잡초지(藁精紙)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대성사 소장의 인출본에서 확인된다. 때문에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1책은 세조 3년(1457)부터 이듬 해까지 조선 세조가 불교적 의식과 함께 외교적인 의도와 왕권의 안정 및 불교계의 지원 등을 확보[43]할 목적에서 국가・왕실의 불사로 해인사대장경판을 50질이나 인출하여 전국의 유명 사원에 나누어 주었던 인출본 가운데 포함된 불교기록유산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대성사 소장의 인출본에는 당대 불교경전에 대한 인식태도가 반영

---

40) 崔永好, 「1214년에 조성된 해인사 소장 『金剛般若波羅密經』의 역사・문화적 성격」, 『石堂論叢』 61,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5, 67~69쪽.
최영호, 「해인사에 소장된 鄭晏 조성경판의 역사・문화적 성격」, 『石堂論叢』 6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6, 96~97쪽.

41) 『세조실록』 권8, 세조 3년 6월 임자・무오.

42) 『靑莊館全書』 권55, 盎葉記2, 海印寺藏經.

43) 任得均(性安스님), 앞의 논문(2014), 194~205쪽.

되어 있다. 그 사례는 개법장진언부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법장진언부호는 해당 불교경전의 첫머리 글자이며, 해당 경전을 讀誦하기 전에 경전의 신성성과 장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표제의 경전 이름 위에 표시하였으며, 표식형태는 '以・八의 모양, 또는 鶴이 서고 뱀(蛇)이 기어가는 모양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법장진언부호가 대성사 소장 인출본에 표기되어 있는 사실에서 세조 때에도 해당 경전에 대한 신성성과 장엄성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식은 고려시대 이래로 계승된 불교의 전통적 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대성사 소장의 인출본에서는 세조 당시 高麗國의 왕조에 대한 인식태도도 확인할 수 있다. 각 권의 권미제 다음에 새겨진 간행기록을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연유는 세조 당시에도 앞 왕조인 고려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문제는 조선초기 고려국에 대한 인식문제와 함께 검토해 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성사 소장의 인출본은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사분율』권47~50의 훼손 부분을 복원하는 동시에, 해당 경판의 보존상태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권50, 제17장 제22・23행의 글자 가운데 '大'자 및 '阿'자, 그리고 '不及' 및 '應'자의 경우에서 진단해 볼 수 있다. 대성사 소장의 인출본은 '大'자 및 '阿'자의 경우가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현존 해당 경판의 글자 및 월정사 소장 인출본과 마모도가 거의 유사한 상태이면서, '不及' 및 '應'자의 경우는 현존 경판 및 월정사 소장본보다 마모도에서 덜 진행되었으며 해당 글자도 뚜렷하게 찍혀 있으므로, 해당 경판의 보존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국보 제32호로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해인사대장경판의 현존 인출본에 담겨진 역사・문화적인 성격을 진단한 다음, 보물 제1943

호로 지정된 부산 대성사 소장『사분율』인출본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인사대장경판은 조성사업이 일단락된 고종 38년(1251) 9월부터 1960년대까지 인출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대만・일본・대마도・유구국・미국・영국・호주 등 여러 지역으로 유통되었으며, 여러 시기에 만들어진 인출본에는 당대의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첫째로, 이들 인출본에는 관찬 사서나 개인문집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당대의 기록을 보완하는 원천자료를 담고 있으며, 특히 인출정보에서는 인출불사의 운영체계와 기원의식 및 참여실태, 참여자의 인적 연계망과 관련 사원 등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인출본에는 인출불사 당시의 종이 종류 및 장정 형태・역량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정보를 담고 있다. 셋째로, 인출본에는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개별경판의 보존상태와 더불어 해당 원판의 존재 여부도 확인하고, 특히 개법장진언부호의 유무에 따른 불교경전의 인식형태 등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담고 있다. 넷째로, 인출본에는 현존 원판에 새겨진 원천정보 가운데 훼손된 내용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도 담고 있다. 다섯째로, 인출본에는 원판과 후대 보각경판의 진위 여부, 보각경판의 보각시기 등을 해명할 수 있는 원천정보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출본에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구성체계와 관련된 '대장' 및 '외장'의 범위를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도 담고 있다.

현재까지 개장・수리 흔적도 없이 인출불사 당시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보물 제1943호 대성사 소장의『사분율』권47~50 인출본에서도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 인출본은 형태서지학적 기본정보와 구성체계를 비롯하여 각수와 서체 및 상하단변의 규격・굴곡도 등에서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해당 경판을 원천텍스트로 인출한 불교기록유산이다. 둘째로, 인출시기는 조선 세조 때이다. 인출본은 인출상태와 간행기록의 유무, 개법장진언부호의 표제나 장정의 형태, 인출종이의 종류 등에서 세조가 국가・왕실의 불사로 해인사대장경판을 50여질이나 인출하여 전국의 유명 사원에 나누어 준 불교기록유산의 일부로 확인하였다. 셋째로, 해당 인출본에는 개법장진언부호의 표기로, 세조 당시 불교경전의 신성성과 장엄성을 인식하는 불교의식이 담겨져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고려시대 이래로 계승된 불교의 전통적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넷째로, 해당 인출본에서는 세조 당시

高麗國의 왕조에 대한 인식태도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인출본은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사분율』권47~50의 훼손 부분을 복원하는 동시에, 해당 경판의 보존상태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도 담고 있다.

특히 국내에 현존하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들 가운데 고려말기~조선초기의 기록유산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 시기 찍어 만든『사분율』권47~50의 인출본 경우에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해당 인출본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성격을 새롭게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논 문 투 고 일 2019년 9월 26일
논 문 심 사 일 2019년 10월 8일
논문심사완료일 2019년 10월 30일

참고문헌

『고려사』·『세조실록』·『稼亭集』·『牧隱文藁』·『牧隱詩稿』·『陶隱集』·『陽村集』·『春亭續集』·『東文選』·『신증동국여지승람』·『靑莊館全書』·『대반야바라밀다경』·『사분율』·『불설장아함경』·『금강반야바라밀경』·『묘법연화경』·『예념미타도량참법』·『대반열반경소』(이상 해인사·월정사·송광사 ·대성사 소장본,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본, 오타니대학 소장본 포함)

『동아일보』

李智冠 편저, 『伽倻山海印寺誌』, 伽山文庫, 1992.

張東翼,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출판부, 1997.

尹忠男·金成煥 편저, 『하버드 燕京圖書館 韓國貴重本 解題』 제1권, 경인문화사, 2005.

국립문화재연구소, 『海外典籍文化財調査 目錄－ 日本 大谷大學 所藏 高麗大藏經』, 2008.

增上寺史料編纂所, 『增上寺三大藏經目錄解題』, 1982.

海老澤, 『東アジアにおける水田形成および水稻文化の硏究』, 白峰社, 2004.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검색

고려대장경연구소/ 경전검색

기윤혜, 「朝鮮 前期 仁粹大妃 刊行 佛書의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윤식, 「朝鮮 世祖의 學術活動과 書籍文化에 대한 考察」, 『書誌學硏究』 29, 2004.

金鉉淑, 「朝鮮 世祖朝의 印刷文化에 대하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0.

남동신, 「李穡의 高麗大藏經 印出과 奉安」, 『韓國史硏究』 163, 한국사연구회, 2013.

朴相國, 「大藏都監과 高麗大藏經板」, 『한국사』 21, 국사편찬위원회, 1996.

박용진, 「고려 우왕대 大藏經 印成과 그 성격－ 이색 撰 고려대장경 印成 跋文과 신륵사 大藏閣記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3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서진원, 「朝鮮 世祖朝의 佛敎政策과 佛書刊行에 관한 연구」, 『도서관』 47-3, 1992.

오용섭, 「世祖 4年의 「高麗大藏經」 後刷考」, 『문헌정보학보』 5, 중앙대학교, 1993.

吳龍燮, 『'高麗新雕大藏徑' 後刷考』,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오용섭, 「「印經跋文」 異版本考」, 『인천대학교논문집』 25, 1996.

吳龍燮, 「『高麗國大藏移安記』에 대한 考察」, 『書誌學硏究』 24, 한국서지학회, 2002.

吳龍燮, 「「搨印節目」으로 본 世祖年間 大藏經 印出」, 『書誌學硏究』 30, 서지학회, 2005.

이경미, 『고려・조선의 法寶信仰과 經藏建築의 변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李智冠, 「大藏經傳來 및 再雕本印經考」, 『韓國佛教文化思想史(上)』,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論叢, 1992.
任得均(性安스님), 「『高麗大藏經』의 海印寺 봉안과 사원의 위상」, 『石堂論叢』 5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2.
任得均(性安스님), 「海印寺 소장 高麗大藏經板의 印經佛事에 대한 조선 세조의 지원 의도」, 『石堂論叢』 59,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4.
최연주, 「조선시대 『고려대장경』의 印經과 海印寺」, 『동아시아불교문화』 1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
崔永好,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31, 한국중세사학회, 2011.
崔永好, 「1214년에 조성된 해인사 소장 『金剛般若波羅密經』의 역사・문화적 성격」, 『石堂論叢』 61,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5.
최영호, 「해인사에 소장된 鄭晏 조성경판의 역사・문화적 성격」, 『石堂論叢』 6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6.
許興植, 「高麗에 남긴 鐵山瓊의 行跡」, 『韓國學報』 11-2(39), 일지사, 1985
常盤大定, 「大藏經彫印攷」, 『哲學雜誌』 28-321, 1913.
小田幹治郎・寺內正毅,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1915)」, 東山 泉涌寺, 1923.
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上・下)」, 『東洋學報』 13-3・14-1, 東洋學術協會, 1923・1924 ; 『滿鮮史研究』 中世2, 1937.
바바 히사유키(馬場久幸), 『高麗大藏經이 日本佛教에 미친 影響』,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 cultural character of the Daeseong-temple(大成寺)'s Dharmagupta-vinaya(四分律) that was printed the Haein-Temple's Tripitaka-Woodblock(海印寺大藏經板)

Choy, Young-Ho

This paper attempt to diagnose a historical & cultural character of the Printing-Books that was printed the Haein-Temple's Tripitaka-Woodblock, and analyze into the Printing-Books of the Daeseong-temple's Dharmagupta-vinaya.

A Printing-Books of the Haein-Temple's Tripitaka-Woodblock have produced at various times, these Printing-Books reflect various historical and cultural realities and personalities of the time.

In particular, the Daeseong-temple's Dharmagupta-vinaya contain within a variety of a historical & cultural personalities. the analytical index have based on bibliographic information & a paper type that included in the Printing-Book of the Daeseong-temple's Dharmagupta-vinaya. first, this documentary heritage is a Printing-Book that was printed the Haein-Temple's Tripitaka-Woodblock. secondly, this documentary heritage was made during the Joseon(朝鮮)-Dynasty's King-Sejo(世祖). third, this Printing-Book is marked with the Gaebeopjang-Mantra-mark(開法藏眞言符號) that represent the divinity and majesty of Buddhist scriptures. fourthly, this documentary heritage is reflected King-Sejo's perception of the Goryeo (高麗)-Dynasty. last, this documentary heritage can restore the damaged part of the Dharmagupta-vinaya's volume 47-50 that contained in the Haein-Temple's Tripitaka-Woodblock, and can also diagnose the preservation status of the woodblock.

Key Word : the Haein-Temple's Tripitaka-Woodblock(海印寺大藏經板), the King-Sejo(世祖), the Printing-Books, the Daeseong-temple(大成寺), *The Dharmagupta-vinaya(四分律)*